

2022. 4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



목 포 시 의 회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박 용 위원장



김수미 부위원장



이형완 위원



김관호 위원



김오수 위원



김근재 위원



백동규 위원

목 차

I. 의대유치 필요성	5
II. 개 요	7
1. 특별위원회 구성	7
2.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9
3. 특별위원회 활동내용	9
III. 주요 활동 실적	11
1. 활동상황 일지	11
2. 주요 활동내용	12
3. 주요성과	16
IV. 참 고 자 료	17
1. 관련 조례	17
2. 주요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19
3. 활동 사진	38
4. 결의문	47
5. 보도자료	55
6. 기타 자료	61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유치지원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

I. 의대유치 필요성

- 의료취약지역에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은 의료접근성을 제고하여 지역 간 의료이용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해당 지역과 자치단체에 상당한 경제적 효과를 제공함.
- 우리나라는 수도권에 의료인력 양성기관과 의료자원이 집중되어 있어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심각한 수준임. 이러한 구조적인 불균형 문제는 농어촌 지역뿐만 아니라 도서지역에서는 더욱 심각한 의사부족과 의료서비스 공급체계에까지 문제를 야기 시킴.
- 전라남도는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만성질환자 등 비감염성 질환의 증가로 가장 낮은 기대수명과 높은 사망률을 보이고 있어 지역주민의 건강수준은 낮은 상태이나, 지역민의 보건의료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보건의료자원은 미흡한 상태임.
-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 및 부속병원이 없음
- 특히, 도서가 많은 서남권지역은 의료자원 부족과 기본적인 보건 의료서비스 제공 부족으로 의료환경이 더욱 열악함.

□ 목포의대는 정치권, 목포대, 자치단체, 지역주민들이 30년간 추진해 온 숙원사업이며 전남은 전국 광역지자체 중 의과대학이 없는 유일한 지역

○ 전남 서남권은 전국 유인도서의 41.7% 밀집된 지역이며 65세 이상 고령인구, 암질환자·만성질환자·응급환자 비율 등이 높은 의료 취약지임.

- (유인도/인구수) 서남권 196개/121,432명, 동부권 74개/48,543명

* 출처 2020 전남 통계

○ 교육부 “목포대 의대 설립타당성 조사용역” 결과 타당성·경제성 입증

○ 교육부에서는 3년마다 대학 기본역량 진단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8년 평가에서 목포대는 첫번째 등급인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되었고, 순천대는 두번째 등급인 역량강화대학으로 선정되어 재정제한 및 정원감축 등의 제재를 받으므로 의과대학 유치에서도 목포대가 경쟁력 있음.

○ 목포시는 이미 대학부지를 마련하여 의과대학 유치 의지가 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반드시 의과대학이 필요한 지역임.

Ⅱ. 개 요

1. 특별위원회 구성

□ 구성 취지

- 목포를 거점으로 한 전남 서남권은 전국 유인도서의 41%가 밀집된 지역으로서 65세 고령인구 비율, 암질환자·만성질환자 비율, 응급환자 비율 등이 높지만 의료서비스 수요를 인프라가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음.
- 이러한 열악한 서남권 보건의료 환경을 개선하고자 우리지역은 1990년부터 목포대 의과대학 신설 건의를 시작으로 지난 30년간 다각적인 유치 노력을 해왔음. 특히 목포시의회는 목포대 의대 유치 건의문·결의문을 수차례 채택하여 지역주민의 뜻을 정부·국회에 전달하는 등 유치 노력에 앞장서고 있음.
- 또한, 최근 의대 유치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별 유치경쟁이 과열현상을 보이고 있어, 이러한 급변하는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목포대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유치에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기 위함.

□ 구성 근거

-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 구성 경위

○ 2021. 3. 24.(수)

-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발의

- 발의자 : 박 용(대표발의), 정영수, 이형완, 이금이, 김휴환, 박창수,
김오수, 김관호, 김근재, 김수미

○ 2021. 3. 24.(수)

-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 선임위원 : 박 용, 김수미, 김관호, 김오수, 이형완, 김근재, 백동규

□ 구성현황 : 7명

구 분	성 명	소속 위원회	비 고
위 원 장	박 용	관광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김 수 미	도시건설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위 원	이 형 완	도시건설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위 원	김 관 호	관광경제위원회	관광경제위원회 위원장
위 원	김 오 수	도시건설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위 원	김 근 재	기획복지위원회	
위 원	백 동 규	도시건설위원회	

□ 활동지원 : 2명

구 분	직 위	성 명	비 고
업무지원	전문위원	한 대 희	
	주 무 관	조 광 운	

2.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 2021. 3. 24. ~ 2022. 6. 30.

3. 특별위원회 활동내용

○ 제1차 특별위원회 회의(21. 3. 24.)

-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 제2차 특별위원회 회의(21. 5. 4.)

- 활동계획서 작성 및 채택

- 교육체육과 의과대학 의대병원 유치 관련 추진 현황 청취

○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유치 지원 간담회 개최(21. 5. 4.)

-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유치를 위한 의견 교환

○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 온택트 토론회 개최(21. 5. 21.)

- 전남의 의료현실과 전라남도 의과대학 설립 필요성

○ 특별위원회 캠페인 실시(21. 7. 14.)

-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유치 거리 홍보

○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설립 건의문 전달(21. 7. 22.)

- 박용진 국회의원에게 의대유치 추진 경과보고, 건의문 전달

○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 발대식(21. 7. 23.)

- 의대유치 추진 경과보고, 위촉장 전달, 결의문 낭독, 성공기원 퍼포먼스 등

○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설립 건의문 전달(21. 7. 27.)

- 우원식 국회의원에게 의대유치 추진 경과보고, 건의문 전달

-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유치지원 간담회 개최(21. 7. 31.)
 - 의대유치를 위한 정치권 협조요청 및 건의문 전달
-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당·정·학 TF단 회의(21. 8. 12)
 - 일시 및 장소 : 2021. 8. 12. 14:00 / 소회의실
 - 참 석 : 추진단 12명
 - 더불어민주당(4), 목포대(5), 목포시(3)
 - 주요내용
 - 의과대학 설립 추진현황 공유 및 국회, 중앙부처와의 협력방안 모색
-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설립 건의문 전달(21. 8. 13.)
 - 이낙연 전 대표에게 의대유치 추진 경과보고, 건의문 전달
-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설립 건의문 전달(21. 8. 14.)
 -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의대유치 추진 경과보고, 건의문 전달
-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설립 건의문 전달(21. 9. 23.)
 -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의대유치 추진 경과보고, 건의문 전달
- 제3차 특별위원회 회의(21. 11. 24.)
 -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유치지원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22년 6월 30일 까지 연장
- 제4차 특별위원회 회의(22. 4. 18.)
 -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과 활동 종료의 건 심의

Ⅲ. 주요 활동실적

1. 활동 상황일지

○ 특별위원회 회의

구분	일 자	장 소	참석인원	내 용
제1차	2021. 3. 24.	소회의실	7명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제2차	2021. 5. 4.	소회의실	7명	• 활동계획서 작성 및 채택 • 교육체육과 의과대학 의대병원 유치 관련 추진 현황 청취
제3차	2021. 11. 24.	소회의실	7명	• 활동기간 2022. 6. 30까지 연장
제4차	2022. 4. 18.	소회의실	7명	• 특위활동 결과보고서 채택 및 활동 종료의 건 심의

○ 간담회 등

구분	일 자	장 소	참석인원	내 용
간담회	2021. 5. 4.	소회의실	30명	•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유치 위한 의견 교환
온택트 토론회	2021. 5. 21.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	20명	• 전남의 의료현실과 전 의대병원 유치 관련 추진 현황 청취
캠페인	2021. 7. 14.	갯바위 일원	10명	• 특별위원회 캠페인 실시
건의문 전달	2021. 7. 22. 2021. 7. 27. 2021. 7. 31.	하당청소년 문화센터 등	12명 15명 40명	• 의대유치를 위한 정치권 협조 요청 및 건의문 전달

구분	일 자	장 소	참석인원	내 용
발대식	2021. 7. 23.	목포국제 축구센터	45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 발대식 · 의대유치 추진 경과보고, 결의문낭독, 성공기원 퍼포먼스
T/F단 회의	2021. 8. 12	소회의실	12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당·정·학 TF단 회의 · 의대설립 추진현황 공유 및 국회, 중앙부처와의 협력방안 모색
건의문 전달	2021. 8. 13. 2021. 8. 14.	더불어 민주당 목포위원회	25명 2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대유치를 위한 정치권 협조요청 및 건의문 전달

2. 주요 활동내용

○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 일 시 : 2021. 3. 24.(수)
- 장 소 : 목포시의회 소회의실
- 참석위원 : 7명
- 의사일정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 선출결과 : 위원장 박 용 의원, 부위원장 김수미 의원 선출

○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 일 시 : 2021. 5. 4.(화)
- 장 소 : 목포시의회 소회의실
- 참석위원 : 7명
- 심사안건 : 활동계획서 작성 및 채택, 교육체육과 의과대학 의대
병원 유치 관련 추진 현황 청취

○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유치 지원 간담회 개최

- 일 시 : 2021. 5. 4.(화)
- 장 소 : 목포시의회 소회의실
- 참 석 : 특별위원회 위원, 국회의원 보좌관, 목포시 관계자 등 20여명
- 주요내용
 - 목포의대 설립, 진행사항 설명
 -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유치를 위한 의견 교환

○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 온택트 토론회 개최

- 일시/장소 : 2021. 5.21.(금) / 노벨평화상기념관
- 주 최 : 전라남도, 목포시, 순천시, 목포대, 순천대 공동 주최
- 주 제 : 전남의 의료현실과 전라남도 의과대학 설립 필요성
- 발 제 : 서울시립대 임준 교수, 국립중앙의료원 이흥훈 실장
- 토 론 자 : 5명 (강영구 도 보건복지국장, 유선주 목대간호학과교수, 양승주 도민대표, 전미양 완도대성병원장, 목포대 교수, 최현주 도의원)

○ 특별위원회 캠페인 실시

- 일 시 : 2021. 7. 14.(수)
- 장 소 : 갯바위 일원
- 참석위원 : 7명
- 주요내용 :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유치 거리 홍보

○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설립 건의문 전달

- 일 시 : 2021. 7. 22.(목) 15:30~16:00
- 장 소 : 목포시의회 의장실

- 참 석 : 박용진 국회의원, 특별위원회 위원, 시의회 의장
- 주요내용 : 박용진 국회의원에게 의대유치 추진 경과보고, 건의문 전달

○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 발대식

- 일 시 : 2021. 7. 23.(금) 10:30
- 장 소 : 목포국제축구센터 대강당(2층)
- 참석대상 : 범시민 추진위원회(목포시장, 목포시의회의장, 목포시 의원, 목포대 총장 등)
- 주요내용 : 의대유치 추진 경과보고, 위촉장 전달, 결의문 낭독, 성공기원 퍼포먼스 등

○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설립 건의문 전달

- 일 시 : 2021. 7. 27.(화) 14:20~15:00
- 장 소 : 목포시의회 의장실
- 참 석 : 우원식 국회의원, 특별위원회 위원, 시의회 의장
- 주요내용 : 우원식 국회의원에게 의대유치 추진 경과보고, 건의문 전달

○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유치지원 간담회 개최

- 일 시 : 2021. 7. 31.(토) 15:00~16:00
- 장 소 : 목포시 하당청소년문화센터
- 참 석 : 고민정 국회의원, 의대특별위원회 위원
- 주요내용 : 의대유치를 위한 정치권 협조요청 및 건의문 전달

○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당·정·학 TF단 회의(21. 8. 12)

- 일시 및 장소 : 2021. 8. 12. 14:00 / 소회의실
- 참 석 : 추진단 12명
 - 더불어민주당(4), 목포대(5), 목포시(3)

- 주요내용

- 의과대학 설립 추진현황 공유 및 국회, 중앙부처와의 협력방안 모색

○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설립 건의문 전달

- 일 시 : 2021. 8. 13.(금) 19:30
- 장 소 : 더불어민주당 목포시사무실
- 참 석 : 이낙연 전대표, 의대특별위원회 위원
- 주요내용 : 이낙연 전대표에게 의대유치 추진 경과보고, 건의문 전달

○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설립 건의문 전달

- 일 시 : 2021. 8. 14.(토) 11시
- 장 소 : 더불어민주당 목포시사무실
- 참 석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의대특별위원회 위원
- 주요내용 : 이재명 후보에게 의대유치 추진 경과보고, 건의문 전달

○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 일 시 : 2021. 11. 24.(수)
- 장 소 : 목포시의회 소회의실
- 참석위원 : 7명
- 심사안건 : 활동기간 연장의 건(2022. 6. 30.까지)

○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 일 시 : 2022. 4. .(화)
- 장 소 : 목포시의회 소회의실
- 참석위원 : 7명
- 심사안건 :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 및 활동 종료의 건

3. 주요성과

- 특별위원회 구성과 활동을 통해 전라남도과 목포시, 국립목포대학교에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유치’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 촉구
- 목포를 방문 한 여당 국회의원들과 대권후보자에게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유치를 위한 건의문’ 전달과 국회의원이 함께하는 간담회를 통해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유치의 당위성을 알리고, 지역 의료 환경에 대한 정치권 인식 제고
- 의대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보도자료 언론사 배포, 거리 캠페인, 공중파 방송 홍보 등을 통해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유치의 당위성을 알리고, 시민 공감대 형성

IV. 참고자료

1. 관련 조례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및 설립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 2020.10.05 조례 제340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의 오랜 숙원인 국립목포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에 의과대학(이하 “의대”라 한다) 유치 및 설립 육성을 지원하여 교육 명품 도시로서의 기틀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사업의 범위)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과대학 유치에 관한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학교에서 의과대학 설립시 육성에 관한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

제3조(지원기간) 시장은 지원사업의 수행이 어렵거나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을 중단 할 수 있다

제4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및 설립 육성을 위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등은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지원사업의 신청 등) ① 대학교의 장은 지원사업이 필요한 경우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규정하는 관련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학교의 장이 신청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지원규모 등을 결정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지원여부
2. 지원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규모
3. 그 밖에 시장이 의과대학 유치 및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소속부서의 국장으로 한다.
1. 목포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2인
2. 대학·연구기관 등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 유치 및 육성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만료로 종료한다.

제9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사망 또는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하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하였을 경우 새로운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 간사에게 회의록을 작성·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자료제출 요구 등) 위원회의 장은 위원회 안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부서의 장, 대학교의 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자문 등)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및 육성 설립에 대한 긴급한 안건 처리나 정책 자문이 필요할 시에는 그 내용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하 “전문가”라 한다)을 초청, 방문, 서면 등으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단, 그 내용의 시급성으로 인하여 위원장이 인정할 경우 별도의 회의 소집 없이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목포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관련 전문가 출석 및 자문시에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를 시행한 날부터 「목포권 대학교 의과대학 및 약학대학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2. 주요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활 동 계 획 [안]



목포시의회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활 동 계 획 [안]

- 목포를 거점으로 한 전남 서남권은 전국 유인도서가 밀집된 지역으로 고령인구 및 암질환자·만성질환자 비율등이 높지만 의료서비스 수요를 인프라가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음
- 우리지역은 1990년부터 목포대 의과대학 유치를 위해 지난 30년간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으나,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자치단체간의 과열현상이 있어 이에 적극 대응하고, 목포대 유치에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의회차원의 지원활동을 하고자 함.

* 목포대 : 의대(목포대 캠퍼스), 대학병원(목암지구) / 지역거점 공공의대, 섬지역 등 소외지역의과대학
* 순천대 : 의대(순천대 캠퍼스), 순천대와 순천시 소유부지 / 여수·순천·광양 중심의 전남권역 거점 공공의대

I

구성 개요

1. 구성 개요

- 명 칭 :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 위 원 수 : 7명(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5명)
※ 위원 명단 별첨
- 활동기간 : 위원 선임일 ~ 2021. 12. 31.

※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56조(위원회의 설치) 및 같은법 시행령 제56조(특별위원회의 설치)

목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특별위원회)

2. 활동대상

- 기 관 : 국회, 보건복지부, 전남도, 전남 교육청, 타 자치단체
- 내 용 : 의대신설, 의대정원 확정 및 의대유치 분위기 조성 활동

3. 중점 활동 방향

- 목포시 관련부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응답
- 의대유치관련 목포대 관계자 의견청취
- 서남권 기관 등 목포의대 유치활동
- 중앙정부 및 정치권에 의대신설 확정정원 촉구 건의
- 타 지자체 유치동향 파악 및 언론 대응 등

4. 행정 사항 [의회사무국]

- 특위 의정활동 소요예산 및 차량지원, 활동사진 촬영 등
- 특위 활동 언론기관 홍보
- 회의 속기 및 기록관리, 특위활동 전반사항 지원

※ 특위활동 소요예산(예정) : 9,000천원

- 활 동 여 비 : 4,000천원 (의원국내여비)
- 회의 및 간담회 : 5,000천원 (의정운영공통경비)

※ 특위 활동에 따라 소요 경비가 증액 또는 감액 될수 있음.

II 주요 활동 계획

1. 관련부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응답

- 추진기간 : 2021. 5. 4(화)
- 보고기관 : 목포시

- 참석대상 : 특위위원, 목포시 관계부서장 등
- 주요내용
 - 타 시군 의대신설 유치동향
 - 목포대 의대유치 관련 정치권 및 중앙부처 동향
 - 목포시 대응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2. 의대유치 관련 간담회 추진

- 추진기간 : 2021. 5월중
- 보고기관 : 목포시 외
- 참석대상 : 특위위원, 목포시 관계부서장, 국회의원 보좌관 등
- 주요내용
 - 목포대 의대유치 관련 정치권 및 중앙부처 동향
 - 의대유치를 위한 대응책 등 논의

3. 의대유치 관련 관계기관 의견 청취

- 추진기간 : 2021. 5월 ~ 6월
- 보고기관 : 목포시, 목포대학교
- 참석대상 : 특위위원, 목포시 및 목포대 관계자 등
- 주요내용
 - 의대유치관련 준비사항 및 동향
 - 의대설립 부지 및 재원마련 대책 등

4. 의대유치 정원 및 신설학교 심사 등에 대한 대응

- 추진기간 : 2021. 3월 ~
- 주요내용
 - 중앙부처 : 의대 신설관련 연내 확정 요청
 - 전 남 도 : 정원 확정에 따른 의대신설 지역(목포) 협의

5. 서남권 기관 등 목포의대 유치활동 유치 활동

- 추진기간 : 2021. 4월 ~ 12월
- 대상기관 : 전남 서남권
- 주요내용 : 의료 취약지역인 전남 서남권 지역의 의대 유치 필요성 등

6. 중앙부처 및 정치권 목포대 의대신설 확정 촉구 건의

- 추진기간 : 2021. 5월중 임시회
- 대상기관 : 중앙부처, 정당 등
- 주요내용 : 중앙부처 및 정치권에 목포대 의대 신설 및 정원 확정 촉구 건의

7. 타지자체 의대유치 동향 파악 및 대응

- 추진기간 : 2021. 3월 ~ 12월
- 주요내용
 - 타 지자체 의대유치 동향파악 및 언론 대응 등

8. 언론·방송을 활용한 홍보 활동 전개

- 추진기간 : 2021. 4월 ~ 12월
- 추진방법 : 홈페이지, 언론보도, TV·라디오 방송 출연 등
- 주요내용 : 특별위원회 활동상황 및 추진 계획 등

Ⅲ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7 명]

(지역구 순)

구 분	성 명	소속 위원회	비 고
위 원 장	박 용	관광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김 수 미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위 원	이 형 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김 관 호	관광경제위원회	위원장
“	김 근 재	기획복지위원회	
“	김 오 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백 동 규	도시건설위원회	

의과대학 유치지원 캠페인 추진 계획(안)



목포시의회

-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 의과대학 유치지원 캠페인 추진 계획(안)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를 위해 목포시의회 특별위원회에서 캠페인을 통한 사회적 공감대와 참여를 확산하고자 함

I 추진배경

- 유동인구가 많은 목포시 대표관광지인 갯바위·평화광장 일원에서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을 위한 활동 추진
- 지역주민의 공감대 형성과 참여 확산을 위한 홍보

II 캠페인개요

- 일 시 : 2021. 7. 3.(토), 15:30 ~ 16:30 (예정)
* 우천시 연기될수 있음
- 참가인원 : 특위 위원 7명, 전문위원외 직원
- 장 소 : 목포 평화광장 일대
- 방 법 : 가두캠페인 및 전단지 배부 홍보
- 주요내용 : 서남권의 취약한 의료환경을 개선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임을 홍보

III 예산사항

- 예산소요액 : 220,000원
 - 플래카드 및 홍보물 제작 : 120,000원
 - 전단지 제작 : 100,000원

붙임 주요 홍보문안 1부.

☐ (플래카드 문안)

“서남권 지역민의 30년 염원”
전라남도 의과대학은 반드시 목포대로 유치하여야 합니다
목포시의회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 (홍보물 문안)

내	용
30년 숙원해결! 의과대는 목포대학으로!	
우리모두의 희망입니다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전남 서남권 의료환경 개선 목포대 의과대학 유치가 정답!	
목포시민의 힘을 모아 의대 유치는 목포대학교로	
목포대 의과대학 유치로 서남권 의료사각지대 해소	
목포시의회는 응원합니다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는 서남권 지역민의 희망입니다	

□ (전단지 문안)

“전남지역 의과대학은 반드시 목포대에서 유치하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목포를 거점으로 한 전남 서남권은 전국 유인도서가 밀집된 지역으로 고령인구, 만성질환자, 응급환자 비율 등이 높지만 의료서비스 수요를 인프라가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서남권 보건의료 환경을 개선하고자 우리지역에서는 1990년대부터 30여년간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다각적인 유치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

특히, 목포시의회는 목포대 의대유치를 위한 건의문·결의문을 수차례 채택하여 지역주민의 뜻을 정부·국회에 전달하는 등 유치 노력에 앞장서 왔습니다.

지난해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 발표로 전국 광역지자체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라남도의 의과대학 설립이 가시화 되었으나 의료계 파업 등의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의과대학 설립 추진에 대한 논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라남도의 의과대학 설립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 되면, 전남 동부권(순천)도 유치를 희망하고 있어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의료기반시설이 동부권보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서남권의 취약한 의료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역민의 숙원사업인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입니다.

목포시민의 지혜와 역량을 모을 때입니다. 시민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를 위해 저희 목포시의회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목포시의회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

「국립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 구성 및 발대식 개최



목포시의회

「국립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 구성 및 발대식 개최

「목포대 의과대학 유치」를 위해 시민·사회단체·유관기관 등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시민 주도의 의과대학 유치 역량 결집 제고

1 구 성

○ 규 모 : 30여 명

* 시민·사회단체, 학계, 경제계, 의료계, 종교계, 체육계 등

○ 주요역할 : 목포대 의과대학 유치활동 전개, 유치역량 결집 등

2 발대식 개요

○ 일 시 : 2021. 7. 23.(금) 11:00 * 의대정원 확대 당정협의 발표(20. 7. 23)

○ 장 소 : 김대중노벨평화상 기념관 다목적 강당(2층)

○ 참석대상 : 범시민 추진위원회

* 주요인사 : 시장님, 목포대총장, 시의회의장, 시의회의원 등

○ 주요내용 : 의대유치 추진 경과보고, 결의문 낭독, 성공기원 퍼포먼스 등

3 행사내용

[소요시간 30분]

시 간	소요	세 부 내 용	비 고
11:00~11:07	7'	개회 및 주요 참석자 소개	
11:07~11:10	3'	「의과대학 설립(유치)」경과보고	
11:10~11:15	5'	인사말씀(시장님, 목포대총장, 시의회의장)	
11:15~11:18	3'	위촉장 전달(시장님→위원회 대표)	
11:18~11:23	5'	결의문 낭독	낭독자(2명): 미정(남1, 여1)
11:23~11:25	2'	기념촬영(시장님과 결의문 낭독자)	
11:25~11:30	5'	의대유치 성공기원 퍼포먼스	
11:30~		폐회	

『목포대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설립



목포시의회

「목포대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설립

【설립 개요】

- 위 치 : 목포대 용해캠퍼스 또는 옥암동 대학부지 내
- 규 모 :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1개소

추진방향

○ 보건복지부

(의대정원) '22학년도부터 년 400명 증원, 10년간 4천명 양성

* 의대 정원: '21년(3,058명) → '22 ~ '31년(3,458명)

(의대신설) 의대가 없는 지역은 의대 신설을 적극 검토·추진

○ 전라남도

(의대정원) 대학병원 수련의사 및 취약지역 의료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정원 100명 이상 확보

사업의 당위성

○ 목포의대는 정치권, 목포대, 자치단체, 지역주민들이 30년간 추진해 온 숙원사업이며 전남은 전국 광역지자체 중 의과대학이 없는 유일한 지역

○ 전남 서남권은 전국 유인도서의 41.7% 밀집된 지역이며 65세 이상 고령인구, 암질환자·만성질환자·응급환자 비율 등이 높은 의료 취약지임

- (유인도/인구수) 서남권 196개/121,432명, 동부권 74개/48,543명 *출처 2020 전남 통계

○ 교육부 “목포대 의대 설립타당성 조사용역” 결과 타당성·경제성 입증

○ 교육부에서는 3년마다 대학 기본역량 진단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8년 평가에서 목포대는 첫번째 등급인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되었고

순천대는 두번째 등급인 **역량강화대학으로 선정되어 재정제한

및 정원감축 등의 제재를 받으므로 의과대학 유치에서도 목포대가 경쟁력 있음.

진행상황

- 목포대 의과대학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 '18. 7. ~ '19. 11
- 당정협의회, 의대정원 확대 및 의대신설 계획 발표 : '20. 7.
 - 의대가 없는 지역은 의대신설을 적극 검토·추진 할 계획
- 서남해안권행정협의회 목대 의대설립 건의문 및 성명서 발표 : '20. 7.
- 목포대 의대 유치추진위원회 발대식 : '20. 8.
 - 목포, 해남, 영암, 무안, 함평, 영광, 완도, 진도, 신안 9개시군 참여
 - 목포대총장·목포시장 공동위원장, 55명으로 구성
 - 9개 시군 서명운동 193,516명 참여
- 정부-의료계 간 의료정책 원점 재논의 합의 : '20. 9.
- 의정협의체 1차 회의개최 : '20. 12.
 -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등은 코로나 안정화 이후 논의하기로 결정
- 목포시의회,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및 활동 추진 : '21. 3. ~ 현재

의과대학 설립 관련 동향

(정 부)

- (VIP) '21. 2. 5 신안 방문, “전라남도 의과대학 신설 필요성 적극 공감”
- (정세균 前총리) '20. 12. 11 목포의료원 방문, “전남에만 의대가 없는 것은 이상, 정부 의지 변함없다” 정부 의지 재확인
- (권덕철 복지부장관) '21. 3. 8 도지사 면담, “전라남도 의과대학 신설, 의정협의체 논의 포함해 추진하겠다” 발언

(보건복지부)

- 의대정원 확대 등 논의 위해 「의정협의체」 「이용자중심 혁신협의체」 운영 중

- (의정협의체) 합의에 따라 복지부, 의협으로 구성
- (이용자중심 혁신협의체) 경실련,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YWCA연합회, 소비자연맹, 환자단체연합회 등 시민단체 구성

(전라남도)

○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설립·운영방안 연구용역

- 기간 : '21. 4 ~ 9, 용역비 : 270백만원, 수행기관 : 서울시립대 산학협력단
- 내용 : 의과대학 설립 방안(인재상 설정, 교육과정) 및 단계별 세부계획
부속병원 설립 당위성, 역할 및 규모 등

○ 취약지역 도민 토론회 실시

- 행사명 : 전남의 의료현실과 의과대학 설립 추진방안
- 일 정 : 5월중(서부권·동부권 2회 개최)

건의사항

- 정부와 의료계 간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등 논의가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치권 차원에서 협조

-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
의과대학 유치지원 간담회 추진 계획



목포시의회

-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 의과대학 유치지원 간담회 추진 계획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를 위해 목포시의회 특별위원회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간담회 개최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

I 추진배경

- 의과대학과 의대병원 유치를 위한 전국적인 분위기 조성과 의대유치의 당위성을 정치권과 지역사회에 알리고 동참을 유도
- 목포 청년들의 공감대 형성과 참여 확산을 위한 홍보

II 행사계획

- 일 시 : 2021. 7.31.(토) 15:00 ~ 16:00
- 참 석 : 고민정 국회의원, 특위 위원 7명, 전문위원외 직원
- 장 소 : 목포시 하당청소년문화센터
- 방 법 : 의대유치를 위한 정치권 협조요청 및 건의문 전달, 지역 청년에 홍보
- 주요내용 : 서남권의 취약한 의료환경을 개선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목포대학교 의과대학과 의대병원 유치임을 안내

붙임 주요 홍보문안 1부.

□ (플래카드 문안)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유치」 간담회

"목포대 의대유치, 청년들이 앞장섭니다."

- 목포시의회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

○ 일시 : 2021. 7. 31.(토) 15:00 ○ 장소 : 목포시하당청소년문화센터

□ (피켓, 어깨띠 문안)

30년 숙원해결!	우리모두의 희망입니다
의과대는 목포대학으로!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전남 서남권 의료환경 개선	목포시민의 힘을 모아
목포대 의과대학 유치가 정답!	의대 유치는 목포대학교로
목포대 의과대학 유치로	목포시의회는 응원합니다
서남권 의료사각지대 해소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는	
서남권 지역민의 희망입니다	

3. 활동 사진

특별위원회 구성
(2021. 5. 4. / 소회의실)



특별위원회 회의
(2021. 5. 4. / 소회의실)



특별위원회 회의
(2021. 5. 4. / 소회의실)



특별위원회 간담회 개최
(2021. 5. 4. / 소회의실)



특별위원회 의대유치 현장 활동
(2021. 7. 14. / 갯바위 일대)



특별위원회 의대유치 현장 활동
(2021. 7. 14. / 갯바위 일대)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후보 박용진 국회의원에게 의대유치 건의문 전달
(2021. 7. 22. / 의장실)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후보 박용진 국회의원에게 의대유치 건의문 전달
(2021. 7. 22. / 목포시의회)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 발대식
(2021. 7. 23. / 목포국제축구센터)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 발대식
(2021. 7. 23. / 목포국제축구센터)



더불어민주당 전)원내대표 우원식 국회의원에게 의대유치 건의문 전달
(2021. 7. 27. / 목포시의회)



전) 청와대 대변인 고민정 국회의원에게 의대유치 건의문 전달
(2021. 7. 31. / 하당청소년문화센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에게 의대유치 건의문 전달
(2021.8.13./더불어민주당 목포시사무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의대유치 건의문 전달
(2021.8.14./더불어민주당 목포시사무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에게 의대유치 건의문 전달
(2021.9.23./더불어민주당 목포시사무실)



목포MBC 홍보 동영상 (캡처)



목포MBC 홍보 동영상 (캡처)

목포MBC
지역사랑 캠페인



의과대학이 없는
전라남도

4. 결의문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촉구 결의문

전국에 40여개가 넘는 의과대학이 있지만 16개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전라남도에만 의과대학이 없다. 전라남도민들의 건강수명은 전국 최하위이며 의사 1인당 환자수가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3차 진료기관도 없는 열악한 의료 환경 속에서 도민 생존권마저 위협을 받고 있다.

특히 전남 서남권은 전형적인 농어촌지역으로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높아 당뇨병·관절염 등 7대 만성질환자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고 1인당 평균진료비 역시 전국 최고 수준이다. 도서지역이 많아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이 낮고 공중보건의사도 타지역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데다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전국 99개의 전문병원 중 전남 서남권에 소재한 전문병원은 단 한곳도 없는 심각한 의료 소외 상황에 처해 있다.

이에 목포대학교에서는 의과대학 유치를 위해 지난 1990년부터 최근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2008년에는 ‘의과대학유치추진기획단’을 발족해 의대 유치 활동을 본격적으로 진행하였다.

2012년부터는 전 도민의 마음을 모아 목포대학교 의과대학유치 도민 결의대회를 열고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추진위원회 서울사무소 현판식을 갖고 의과대학 유치를 위해 더욱 적극적이고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신설은 이미 제17대 정부의 정책공약 사항이었고, 2012년 대선 지역발전 현안 공약사항으로 전라남도는 전남 서남권의 거점

국립대학인 목포대학교 의대 및 대학병원 설립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거듭 건의한 바 있다.

이에 목포시의회는 도민의 생존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해 줄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립을 위해 25만 목포시민과 함께 다음과 같이 강력히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전남서남권의 열악한 의료환경을 개선하고 지역민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목포대학교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의 설립을 즉각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지역 의료 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전남서남권에 3차 의료기관 및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라!

2013. 5. 23.

목포시의회 의원 일동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촉구 결의문

전남지역은 16개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다. 의과대학 유치는 전남도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숙원사업이다.

전남지역은 경제적 낙후지역임에도 1인당 평균진료비는 전국 최고이며 건강수명 역시 전국 최하위로 기록되고 있다.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높아 당뇨병·관절염 등 7대 만성질환자 비율 또한 전국에서 가장 높다.

특히, 전남 서남권은 전국 유인도서의 약 44%인 210개의 유인도서가 위치해 있는 도서벽지와 농어업 비중이 높은 전형적인 농어촌지역으로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이 낮고 공중보건의사도 타지역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전국 111개의 전문병원 중 전남에는 4개소에 불과하고 그중 3곳은 동부권에 위치하고 있어 전남내에서도 의료서비스의 균형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목포대학교에서는 의과대학 유치를 위해 지난 1990년부터 현재까지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오고 있다.

2008년에는 ‘목포대 의과대학 설립 정책포럼 및 추진위원회’를 발족해 의대 유치 활동을 본격적으로 진행하였고, 2012년부터는 전 도민의 마음을 모아 목포대학교 의과대학유치 도민 결의대회 및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했으며, 2017년에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목포대학교 지역인재와의 대화’에서 의대 유치를 건의 하는 등 적극적이고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신설은 제17대 정부의 정책공약 사항이었고, 2012년 대선 지역발전 현안 공약사항으로 전라남도는 전남 서남권의 거점 국립대학인 목포대학교 의대 및 대학병원 설립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거듭 건의한 바 있다.

헌법 제36조에서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며 국민 보건에 관하여 국가에게 그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는 국민 누구나 균형있고 평등한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음을 확인해 주는 것으로 정부는 의료소외를 받는 국민이 없도록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에 목포시의회는 전남 서남권의 열악한 의료서비스 구조 개선을 위해 25만 목포시민과 함께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립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7. 9. 11.

목포시의회 의원 일동

의료혜택 평등을 위한 목포대 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설립 건의문

지난 30년간 의과대학 유치는 지역민의 오랜 숙원이었다.

2007년 이명박 정부시절 ‘다도해 지역 등의 의료·보건기반 조성을 위해 목포대학교에 의과대학 개설 및 대학병원 건립’을 공약했었고, 2008년에는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정책포럼 및 추진위원회’를 발족해 의대 유치활동을 본격적으로 진행하였으며, 2012년부터 전 도민의 마음을 모아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도민 결의대회 및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 2017년에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목포대학교 지역 인재와의 대화’에서 의대 유치를 건의하는 등 1990년부터 현재까지 목포대 의과대학 유치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아직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전남은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의과대학과 중증질환 치료 전문병원이 없는 유일한 지역이다. 인구 고령화로 암, 만성질환 등의 발병률이 높아 진료비 부담이 크고 중증질환 치료를 위한 원정 진료도 매우 잦다.

또한 노인 빈곤율, 기초수급자 비율, 중증장애인 비율, 인구 1인당 진료의사 수 등을 반영한 보건의료 실태에서도 전국 광역단체 중 가장 열악한 현실이다. 특히, 섬으로 둘러싸인 지리적 여건과 전남 내에서도 다른 지역에 비해 응급의료 수준이 가장 열악한 서남권은 지역 내 의과대 유치를 통해 획기적인 의료 인프라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다.

지난해 7월부터 국무총리실 산하 정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진행 했던 목포대학교 의과대 설립 타당성 조사 결과가 곧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용역결과를 통해 목포대 의과대학 신설의 논리적 근거가 마련되면 지역민의 30년 숙원을 이룰 절호의 기회가 다시 찾아올 것이라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목포대에 의과대학이 설치되면 전남도민의 건강향상과 의료 불평등 해소는 물론 일자리 창출과 인구증가 등으로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는 국민 누구나 균형 있고 평등한 의료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음을 확인해 주는 것으로 정부는 의료소외를 받는 국민이 없도록 국민 보건에 관한 국가의 책무를 무겁게 받아들이길 기대한다.

이에 목포시의회 의원 일동은 정부에 목포대 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설립을 정책으로 반영하여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며 이를 위해 목포시민과 함께 총력을 다 할 것임을 약속하는 바이다.

2019. 12. 19.

목포시의회 의원 일동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설립 건의문

목포대 의과대학 유치는 지난 30여 년간 지역민의 오랜 숙원입니다.

지역민들은 1990년 목포상공회의소가 목포대 의과대학 신설을 건의한 것을 시작으로 도민결의대회, 100만인 서명운동, 서남권 9개 시·군이 함께하는 목포대 의대 유치추진위원회 활동 등 지속적인 유치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정치권에서도 2007년 이명박 대통령 정부시절 ‘다도해 지역 등의 의료·보건기반 조성을 위해 목포대학교에 의과대학 개설 및 대학병원 건립’을 공약했습니다.

하지만 전남 서남권 지역민의 오랜 숙원은 아직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전남 서남권은 전국 유인도시의 41.7%인 196개가 밀집된 지역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65세 이상 고령인구, 암질환자, 만성질환자, 응급환자 비율이 전국 비율보다 월등히 높아 낙후된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공공의료기관 설립이 필요한 의료 취약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 여건에 맞는 의료체계 구축과 의사 수 확보를 위한 정책이 다른 지역보다 최우선적으로 수립되고 반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료수급 불균형으로 서남권 주민들은 의료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타 지역과의 의료격차도 큼니다.

지난해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 발표로 전남의 의과대학 설립이 가시화 되었으나 의료계 휴업 등의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의과대학 설립 추진에 대한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장 열악한 전남 서남권의 의료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지역민의 숙원사업인 목포대학 의과대학과 의대병원 설립입니다.

이에 목포시의회 특별위원회 의원 일동은 정부와 의료계간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 의대 신설 등 논의가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추진해 줄 것을 서남권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 건의합니다.

2021년 7월 22일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일동

5. 보도 자료

보도자료	기관명	목포시의회
	담당자	조 광 운
2021년 3월 12일	연락처	061-270-3721

목포시의회, 제365회 임시회 12일 개회

**“한국섬진흥원, 의과대학과 의대병원 목포 유치위해 적극 나서”
“시정질문 및 제2회 추경 예산안, 일반부의 안건 등 처리”**

목포시의회(의장 박창수)는 12일부터 24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제365회 임시회를 운영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목포 당면사업 관련 사항 의결과 시정질문을 하고,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일반부의 안건 등을 처리한다.

12일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휴환의원이 대표 건의한 ‘한국섬진흥원 목포 유치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여 행정안전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건의문에는 ‘한국섬진흥원’의 목포 설립에 당위성과 지역민의 염원을 알리고, 목포 유치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앞서, 목포시의회는 지난 8일 ‘한국섬진흥원 목포유치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여 ‘한국섬진흥원’의 목포유치 당위성을 주장한 바 있다.

24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박 용의원이 대표 건의한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고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여 의과대학과 의대병원 목포 유치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이번 2021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966,314,499천원으로 일반회계 881,235,433천원과 특별회계 85,079,066천원이다.

보 도 자 료	기관명	목포시의회
	담당자	박 미 애
2021년 3월 24일	연락처	061-270-8144

목포시의회 의대유치 특위, 전남대 의학계열 지역인재전형 반발

“전남대 의대 지역인재전형 ‘광주·전남’ 지역으로 한정해야”

“지역 보건인력과 의료환경 개선 위해서도 서남권 의대 필요”

목포시의회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유치지원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용)’는 전남대 의학계열 지역인재전형에 광주·전남으로 지역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전남대는 2023학년도 의학 계열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2022학년도 41%에서 62%로 확대하는 등의 대학입학 전형 시행 계획을 발표하면서 의학계열 지역인재전형 지원 자격은 현행대로 광주, 전남, 전북에 있는 고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생(졸업예정자 포함)로 유지했다.

하지만 이는 전북대가 전북을 지원자격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서 광주·전남 학생들에게 피해를 안겨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박 용 위원장은 “전남대가 전북으로 지역을 확대한 것에 대해 광주·전남지역 학생들에게 역차별을 안겨주고 있다.”며 “전남대는 지역거점국립대학으로 책임을 다해 광주·전남으로 지역을 한정해 인재를 선발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위원장은 “전남 서남권은 지난 30여 년간 지역의 열악한 보건인력과 의료환경 개선을 요구해 왔다.”며 “지역 인재 유출 방지를 위해서도 서남권에 의과대학이 반드시 설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코로나19가 대유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남 서남권의 열악한 의료 서비스 개선은 절실함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전남 서남권 의대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박 용 의원(부흥·신흥·부주동), 부위원장 김수미 의원(비례대표)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올해 말까지 활동 하게 된다.

보 도 자 료	기관명	목포시의회
	담당자	박 미 애
2021년 5월 4일	연락처	061-270-8144

목포시의회 “의대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 간담회 개최

- 목포대 의대 유치를 위한 중앙부처 동향 파악 및 대응전략 모색

목포시의회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유치지원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용)’는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유치를 위한 간담회를 4일 개최하였다.

의회 소회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특별위원회 위원을 비롯한 김동현 국회의원 보좌관, 목포시 관계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하였다.

박용 위원장은 ‘지난해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대한의사협회와 합의하였지만, 전남에 의대 신설은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와 합의와 별개의 문제로 보고 있다.’며 특별위원회 구성과 간담회 개최 배경을 설명하였다.

참석자들은 전남은 전국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고 서남권에 의료취약 지역인 섬이 많아 의대 유치가 꼭 필요하다는데 서로 공감하며, 중앙부처의 동향을 비롯한 시 차원의 대응전략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하였다.

박용 위원장은 ‘전남 서남권 의대 유치는 지역주민의 오래된 숙원사업으로, 목포시와 함께 단계적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목포대에 의과대학이 설립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별위원회에는 박용 위원장과 김수미(부위원장), 김오수, 김관호, 이형완, 백동규, 김근재 의원 등 7명의 목포시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보 도 자 료	기관명	목포시의회
	담당자	박 미 애
2021년 7월 14일	연락처	061-270-8144

목포시의회 “의대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 캠페인 활동

- 목포대 의대 유치를 위한 시민과 관광객 대상 현장 활동 전개

목포시의회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유치지원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용)는 지난 14일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유치를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날 캠페인은 갯바위를 찾은 시민과 관광객에게 목포대 의과대학 유치의 당위성을 알리고 의대유치를 위한 지역민의 염원을 모으기 위해 펼쳐졌다

캠페인은 목포 갯바위 일원에서 특별위원회 박용 위원장과 김수미 부위원장, 김관호, 이형완, 김근재, 김오수, 백동규 위원이 함께 홍보물을 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홍보물에는 전남 서남권의 열악한 보건의료 환경을 개선하고자 했던 지역민의 노력과 지난해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 발표에 따른 전남권의 의과대학 설립 상황 등을 설명하며 서남권의 취약한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목포대학 의과대학이 꼭 필요함을 호소하고 지역민들께서 지혜와 역량을 모아주시길 바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용 위원장은 ‘지역민의 숙원사업인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를 위해서는 시민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특별위원회는 의대유치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별위원회는 지난 5월 국회의원 보좌관과 목포시 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목포대 의대 유치를 위한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보 도 자 료	기관명	목포시의회
	담당자	박 미 애
2021년 7월 22일	연락처	061-270-8144

목포시의회 ‘의대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 적극적 활동 펼쳐

-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설립 건의문 박용진 국회의원에 전달

목포시의회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유치지원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용)는 지난 22일 목포시의회를 방문한 박용진 국회의원에게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설립 건의문을 전달했다

박용진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로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후, 특별위원회의 요청으로 목포시의회를 방문하였다.

목포시의회 박창수 의장을 비롯한 특별위원회 위원들과 간담회를 갖는 가운데 박용 위원장은 ‘목포대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유치는 목포대, 자치단체, 지역주민들이 30년간 추진해 온 숙원사업이며 전남은 전국 광역지자체 중 의과대학이 없는 유일한 지역이다’며 지지를 요청하며 건의문을 전달했다

건의문에는 ‘열악한 전남 서남권의 의료 환경을 개선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지역민의 숙원사업인 목포대학 의과대학과 의대병원 설립’이며, 정부와 의료계간 의대병원 확대 및 공공 의대 신설 등 논의가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특별위원회는 지난 14일 갯바위 일원에서 특별위원회 박용 위원장과 김수미 부위원장, 김관호, 이형완, 김근재, 김오수, 백동규 위원이 함께 홍보물을 배부하며 캠페인을 펼치는 등 목포대 의대유치를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보 도 자 료	기관명	목포시의회
	담당자	박 미 애
2021년 7월 27일	연락처	061-270-8144

목포시의회, 의대신설 논의 이루어지도록 정치권에서 나서 주길 바래 -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설립 건의문 우원식 국회의원에 전달

목포시의회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유치지원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용)’가 의대유치를 위해 적극적 행보를 펼치고 있다.

특별위원회는 지난 27일 목포시의회를 방문한 우원식 국회의원에게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설립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에 앞서 지난 22일에도 박용진 국회의원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갖고,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설립 건의문을 전달한 바 있다.

우원식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이재명 경기지사 캠프 선거대책 위원장으로 전남도의회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후, 특별위원회의 요청으로 목포시의회를 방문하여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목포시의회 박창수 의장을 비롯한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하였다.

박 용위원장은 ‘전남은 전국 광역지자체 중 의과대학이 없는 유일한 지역이고, 특히 목포대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유치는 서남권 지역민이 30년간 추진해 온 숙원사업이다.’며 지지를 요청하고 건의문을 전달했다

건의문에는 ‘열악한 전남 서남권의 의료 환경을 개선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지역민의 숙원사업인 목포대학 의과대학과 의대병원 설립’이고, ‘정부와 의료계간 의대병원 확대 및 공공 의대 신설 등 논의가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특별위원회는 지난 5월 간담회를 갖고 중앙부처의 동향을 비롯한 시 차원의 대응전략 등을 논의했으며, 이번 달 14일에는 갯바위 일원에서 박용 위원장과 김수미 부위원장, 김관호, 이형완, 김근재, 김오수, 백동규 위원이 함께 홍보물을 배부하며 캠페인을 펼치는 등 목포대 의대 유치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6. 기 타 자 료

참고 1

전국 시도별 연령대 현황

(2021. 3월말 기준)

구 분	총 인구수 (명)	30세 미만		30-59세		60세 이상		비 고
		인구수	비 율	인구수	비 율	인구수	비 율	
합 계	51,705,905	15,437,859	29.9%	23,676,211	45.8%	12,591,835	24.3%	
서울특별시	9,598,484	2,835,169	29.5%	4,486,283	46.7%	2,277,032	23.7%	
부산광역시	3,372,399	925,647	27.4%	1,483,837	44.0%	962,915	28.6%	
대구광역시	2,408,875	716,518	29.7%	1,094,279	45.4%	598,078	24.8%	
인천광역시	2,936,461	895,518	30.5%	1,394,327	47.5%	646,616	22.0%	
광주광역시	1,445,473	481,409	33.3%	657,718	45.5%	306,346	21.2%	
대전광역시	1,458,463	468,805	32.1%	667,584	45.8%	322,074	22.1%	
울산광역시	1,129,254	349,873	31.0%	543,595	48.1%	235,786	20.9%	
세종특별자치시	360,462	128,688	35.7%	177,543	49.3%	54,231	15.0%	
경기도	13,465,837	4,271,070	31.7%	6,442,318	47.8%	2,752,449	20.4%	
강원도	1,536,399	418,184	27.2%	651,735	42.4%	466,480	30.4%	
충청북도	1,595,714	466,625	29.2%	703,207	44.1%	425,882	26.7%	
충청남도	2,115,823	612,177	28.9%	930,064	44.0%	573,582	27.1%	
전라북도	1,797,450	508,894	28.3%	750,980	41.8%	537,576	29.9%	
전라남도	1,844,811	494,442	26.8%	754,066	40.9%	596,303	32.3%	
경상북도	2,635,563	692,813	26.3%	1,125,636	42.7%	817,114	31.0%	
경상남도	3,330,463	959,725	28.8%	1,506,170	45.2%	864,568	26.0%	
제주특별자치도	673,974	212,302	31.5%	306,869	45.5%	154,803	23.0%	

* 60세 이상 고령자 비율에서 전라남도가 가장 높음 (자료출처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참고 2

전국 시도별 평균 연령대

(2021. 3월말 기준)

구 분	평균연령 (남)	평균연령 (여)	평균연령 (전 체)	비 고
전 국	42.2	44.5	43.3	
서울특별시	42.4	44	43.2	
부산광역시	43.9	46.4	45.2	
대구광역시	42.3	45	43.7	
인천광역시	41.5	43.4	42.5	
광주광역시	40.3	42.7	41.5	
대전광역시	41	43.1	42.1	
울산광역시	40.9	42.8	41.8	
세종특별자치시	36.9	38	37.4	
경기도	40.6	42.4	41.5	
강원도	44.6	47.6	46.1	
충청북도	42.9	45.7	44.3	
충청남도	43	45.8	44.4	
전라북도	44.1	47.3	45.8	
전라남도	45.1	48.9	47	
경상북도	44.7	48.3	46.5	
경상남도	42.6	45.6	44.1	
제주특별자치도	41.3	43.7	42.5	

* 남자 및 여자평균연령, 전체 평균연령에서도 전라남도가 가장 높음

(자료출처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참고 3

최근 3년간 60세이상 사망자 현황

구 분	2019년		2018년		2017년		비 고
	전체사망자	60세이상	전체사망자	60세이상	전체사망자	60세이상	
전 국	295,110	246,406 (83.5%)	298,820	248,600 (83.2%)	285,534	235,465 (82.5%)	
서울특별시	43,829	36,261 (82.7%)	45,219	37,110 (82.1%)	42,932	34,930 (81.4%)	
부산광역시	22,260	18,771 (84.3%)	22,570	18,920 (83.8%)	21,434	17,758 (82.8%)	
대구광역시	13,752	11,345 (82.5%)	14,070	11,587 (82.4%)	13,629	11,146 (81.8%)	
인천광역시	15,131	12,125 (80.1%)	15,316	12,301 (80.3%)	14,290	11,360 (79.5%)	
광주광역시	7,635	6,276 (82.2%)	7,781	6,404 (82.3%)	7,560	6,089 (80.5%)	
대전광역시	7,502	6,130 (81.7%)	7,403	6,009 (81.2%)	7,029	5,691 (81.0%)	
울산광역시	5,268	4,198 (79.7%)	5,349	4,213 (78.8%)	4,886	3,795 (77.7%)	
세종특별자치시	1,221	992 (81.2%)	1,259	1,039 (82.5%)	1,159	974 (84.0%)	
경 기 도	60,568	49,135 (81.1%)	60,050	48,623 (81.0%)	56,852	45,318 (79.7%)	
강 원 도	11,906	10,037 (84.3%)	11,976	10,119 (84.5%)	11,545	9,670 (83.8%)	
충청북도	11,363	9,662 (85.0%)	11,334	9,548 (84.2%)	11,104	9,308 (83.8%)	
충청남도	15,596	13,398 (85.9%)	15,802	13,483 (85.3%)	15,321	12,994 (84.8%)	
전라북도	14,525	12,662 (87.2%)	14,552	12,591 (86.5%)	14,295	12,392 (86.7%)	
전라남도	16,787	14,823 (88.3%)	17,219	15,092 (87.6%)	16,848	14,719 (87.4%)	
경상북도	21,703	18,890 (87.0%)	22,289	19,270 (86.5%)	21,278	18,276 (85.9%)	
경상남도	22,105	18,558 (84.0%)	22,719	19,171 (84.4%)	21,634	18,070 (83.5%)	
제주특별자치도	3,959	3,143 (79.4%)	3,912	3,120 (79.8%)	3,738	2,975 (79.6%)	

(자료출처 : 통계청 인구통계조사)

참고 4

전국 유인도서 현황

(2018.12.31. 기준)

구 분	일 반 현 황				비 고
	개수	면적(㎡)	가구(호)	인구(인)	
합 계	465	3,787,866,338	387,007	834,536	
부산광역시	3	38,752,898	57,449	123,788	
인천광역시	39	707,643,219	78,668	164,132	
경 기 도	5	3,984,181	512	853	
충청남도	33	155,817,151	8,743	16,254	
전라북도	25	37,023,118	2,617	5,033	
전라남도	272	1,854,972,317	87,613	173,796	
경상북도	3	73,255,321	5,510	9,854	
경상남도	77	902,380,923	143,571	336,616	
제주특별 자 치 도	8	14,037,210	2,324	4,210	

참고 5

전라남도 유인도서 현황

(2020.12.31. 기준)

구 분	일 반 현 황				비 고
	개수	면적(㎡)	가구(호)	인구(인)	
합 계	272	1,854,679,849	87,900	165,415	
목포시	6	10,330,617	422	742	
여수시	45	179,356,215	12,124	22,594	
광양시	2	27,770,335	6,059	14,265	
신안군	73	657,482,000	21,964	39,408	
해남군	7	7,114,746	410	842	
진도군	45	434,355,688	16,840	31,227	
완도군	54	390,932,982	23,573	45,369	
보성군	3	2,793,674	154	264	
강진군	1	320,745	21	50	
장흥군	2	1,569,000	90	160	
무안군	1	502,122	31	46	
영광군	10	10,910,792	411	594	
고흥군	23	131,240,933	5,801	9,873	

※ 전남 유인도서 272개소중 서남해안권이 196개소(72%) 차지

참고 6**목포시 관내 유인 및 무인도서 현황**

(2020. 12. 31 기준)

연번	유인도서	세대수	인 구		
			소 계	남	여
합 계	6 개 소	422	742	414	328
1	달리도	136	211	106	105
2	외달도	39	89	52	37
3	율도	99	194	111	83
4	장좌도	7	19	11	8
5	우도	3	4	1	3
6	고하도	138	225	133	92

※ 무인도서 : 5개 (한산도, 소두량섬, 별도, 노속도, 맥도)

참고 7

의과대학 정원 현황 (2020년)

지역별	입학정원		학 교 명
	학교수	정원	
계	40	3,058	
서울	8	826	서울대(135), 경희대(110), 고려대(106), 연세대(110), 중앙대(86), 이화여대(76), 한양대(110), 가톨릭대(93)
부산	4	343	부산대(125), 고신대(76), 인제대(93), 동아대(49)
대구	4	302	경북대(110), 계명대(76), 영남대(76), 대구가톨릭대(40)
인천	2	89	인하대(49), 가천대(40)
광주	2	250	전남대(125), 조선대(125)
대전	2	150	충남대(110), 을지의대(40)
울산	1	40	울산대(40)
경기	3	120	아주대(40), CHA의과대(40), 성균관대(40)
강원	4	267	강원대(49), 한림대(76), 관동대(49), 연세대원주(93)
충북	2	89	충북대(49), 건국대충주(40)
충남	3	182	단국대천안(40), 순천향대(93), 건양대(49)
전북	2	235	전북대(144), 원광대(91)
전 남	-	-	-
경북	1	49	동국대경주(49)
경남	1	76	경상대(76)
제주	1	40	제주대(40)

* '18년 서남대 폐교에 따른 49명 감으로 전북대(34명), 원광대(15명)에 일시적으로 정원 배정

참고 8

국내 의과대학 설립경과 및 입학정원 변화

기간	의대수	입학정원	의과대학 (정원)
~1948	6 (6개 신설)	800	경북(120) 서울(190) 전남(140) 고려(120) 연세(150) 이화(80)
1948~1962	8 (2개 신설)	1,040	부산(140) 가톨릭(100)
1963~1979	19 (11개 신설)	2,210	전북(120) 충남(120) 경희(120) 계명(80) 순천향(100) 연세원주(100) 인제(100) 조선(140) 중앙(90) 한양(120) 영남(80)
1980~1987	28 (9개 신설)	2,770	경상(80) 고신(80) 원광(80) 한림(80) 동아(50) 인하(50)충북(50) 건국(40) 동국(50)
1988~1992	32 (4개 신설)	2,880	단국(30) 아주(30) 울산(30) 대구가톨릭(20)
1993~1998	41 (9개 신설)	3,300	강원(50) 관동(50) 건양(50) 서남(50) 제주(40) 을지(50) 가천(60) 성균관(40) 포천중문(40)
1999	41	3,180	
2000	41	3,273	
2001~2003	41	3,253	
2004~2005	41	3,097	
2006~2019	40 *서남의대 폐교	3,058	* '18년 서남의대 폐교에 따른 49명 감원 분은 전북대(34명), 원광대(15명)에 일시적으로 배정

□ 119 구급차 배치 : 6대

- 신안(흑산·비금) , 완도(노화·금일·소안·금당지역대)

□ 진료 대책

- (1차) 현지 의료기관(보건소 포함) 진료
- (2차) 응급환자 발생 시 119나르미션.소방헬기 등 이용 육상 구급차와 연계 병원이송

□ 이송 대책

- 나르미션 128척 지정 운영(**9개 시·군 70개섬**)
- 선박 이송 불가하거나 응급시 **소방헬기 2대와 보건복지부 닥터헬기 1대**, 총 3대가 응급환자 이송 위해 운영중.

※ 신안군청 응급환자 이송 체계도 참조

□ 관련근거

- 119 명예구급선 시범운영 : '04. 6. 20
- 119 나르미션 (명칭변경) 지정 운영 : '05. 4 ~ 현재

□ 운영취지

- 섬 지역 구급 사각지역 해소와 신속한 접근을 위해 2004. 6월부터 운영
- 응급의료체계가 열악한 도서지역 야간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119명예구급선('04.6.20.)」으로 시범운영을 시작, '05년 4월 공모를 통해 「119 나르미션」으로 명칭변경
- '13년 안전행정부 '나르미 선박에 IT기술을 접목 환자이송지원시스템구축' 지원사업 선정, 단말기 보급 및 상황관리용 시스템 구축으로 도서 지역 응급환자 이송 체계화의 계기 마련.

□ 지 정 : 128척 (9개 시·군 70개 도서)

- 50가구 이상 유인도서(115개소) 선박보유자중 희망자 또는 지역민 추천으로 지정
- 연 1회 정비(폐선, 선박감축)

□ 출동지령

- 나르미션에 설치된 출동단말기의 위치정보를 확인, 사고 장소와 근거리 위치한 선박에 출동지령

□ 운영대수

소방서 \ 구 분	시·군별	도서 수	선 박	비 고
7개 소방서	9개 시·군	70개 도서	128척	

* 여수 36, 신안 32, 완도 21, 고흥 11, 진도 12, 보성 6, 영광 4, 해남 2, 목포 4

□ 나르미선지정 세부현황

구분	시·군별	나르미선	배치도서
계	9개 시군	70개소128척	
1	목포시	3개소 4척	북항 1, 울도 2, 달리도 1
2	신안군	19개소 32척	가거도3, 가산리2, 고이도2, 당사도2, 대리2, 도초도2, 동면길1, 매화도2, 비금도1, 상태도1, 선도1, 신원리1, 신의도2, 안좌도2, 어의도1, 우이도2, 자라도1, 장산도3, 팔금도1,
3	여수시	19개소 35척	개도5, 금오도1, 낭도1, 고도1, 대경도1, 대두라도3 대횡간도2, 동도2, 사도1, 상화도2, 서도3 소경도2, 안도2, 연도2, 월호도 1, 적금도2, 자봉도1 초도1, 하화도 2
4	보성군	2개소 6척	장도4, 해도2
5	고흥군	7개소 11척	지죽도3, 득량도2, 상화도1, 시산도2, 연흥도1, 하화도1 백일도1
6	해남군	2개소 2척	어불도1, 상마도1
7	진도군	4개소 12척	서거차도1, 조도8, 죽향도2, 대마도1
8	영광군	3개소 4척	안마도1, 상낙월2, 송이도1
9	완도군	11개소 21척	고마도1, 금일도5, 금당도2, 넓도1, 노화도1, 대모도2, 마삭도1, 보길도2, 소안도4, 사후도1, 생일도1

(자료출처 : 전남소방본부)

참고 11**전국 닥터헬기 도입 현황 (6대)**

연 번	도 입 년 월	지 역 명	비 고
1	2011년 9월	전남 (목포 한국병원)	2017년 중형 헬기 교체 (가거도 왕복 가능)
2	2011년 9월	인천 (가천대길병원)	
3	2013년 7월	강원 (원주 기독교병원)	
4	2013년 7월	경북 (안동병원)	
5	2016년 1월	충남 (단국대병원)	
6	2016년 6월	전북 (원광대병원)	